

[Press Release] 총 10쪽

정수정 개인전 《검은 뼈, 진심과 원석》



- 2023년 12월 13일부터 2024년 1월 3일까지 약 3 주간 에이라운지에서 개최되는 정수정 개인전
- '마녀'를 소재로 그려진 신작 캔버스 회화 11점 전시
- '마녀'라 불려온 역사 속, 허구의 서사 속 여성 인물들을 작가만의 시각으로 재해석하고, 기존의 다소 경직된 서사와 대비되는 다채로운 세계관을 제시

○ 전시 개요

전 시 제 목: 《검은 뼈, 진심과 원석 Black Bones, Heart and Gemstones》

참 여 작 가: 정수정

일 정: 2023년 12월 13일 (수) – 2024년 1월 3일 (수)

*오프닝 리셉션 12월 13일(수) 오후 5시

장 소: 에이라운지(A-Lounge)

(문의: 02-395-8135, 이승민 대표: 010-5222-8135)

개 관 시 간: 화-토, 11am-6pm (일, 월 휴관)

입 장 료: 무료

웹 사 이 트: www.a-lounge.kr

*Press Inquiries: 박고은 디렉터 (goeunpark@a-lounge.kr, 02-395-8135)

○ 전시 내용

정수정 개인전 《검은 뼈, 진심과 원석 Black Bones, Heart and Gemstones》이 2023년 12월 13일부터 2024년 1월 3일까지 에이라운지에서 개최된다. 출품작은 모두 캔버스 회화로, 작가가 지난 2023년 9월 프리즈 서울(FRIEZE SEOUL)에서 솔로 부스를 선보인 후 새로 제작한 신작 회화 11점이 전시된다.

전시작들은 '마녀'를 주 소재로 삼고 있다. 작가는 역사 속 혹은 허구의 서사 속에서 접할 수 있는 '마녀' 관련 일화들을 참조해, 다채로운 형상과 자태, 몸짓, 표정을 지닌 마녀의 형상과 더불어 마녀 서사 속에 등장하는 동물, 사물들을 화면 위에 자유로이 배치했다.

그간 정수정은 꾸준히 여성을 그려 왔다. 뛰노는 여성 님프, 강렬한 에너지를 발하는 여성 악당, 17세기 네덜란드 인물화 장르인 트로니를 참조해 작업한 여성 초상화 시리즈 등, 작가의 상상으로 이룩된 세계 속에서 작가가 부여한 독특한 인격과 에너지를 지닌 이 여성 주인공들은 대부분 현실의 제약에 휘둘리지 않는 존재들이다. 마찬가지로,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마녀라 불려온 여성들의 형상을 자기의 시선으로 새로이 해석한 회화들을 선보인다. 다만 작가의 회화는, 결론을 내거나 특정한 방향을 주장하기보다, 그간 마녀를 다루어 온 역사와 서사, 통념이 고수해 온 경직성을 드러냄과 동시에 다채롭고 유연한 세계관을 제시하고 있다.

○ 작가 소개

정수정 (B.1990)

정수정 작가는 상상하는 것들을 장면으로 만들고 그림으로 옮긴다. 과학적 논리 및 합리적 사유로는 설명되기 어려운 의문스런 사건과 사고의 원 서사를 확장시켜 회화의 기반으로 삼는다. 갑작스런 고래의 떼죽음, 이유 없이 불타오른 신체, 빅풋의 발자국 등 쉬이 규명되기 어려운 일들이 작업의 재료가 된다. 보다 최근에 작가는 사회적 이슈나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고찰을 캔버스 속 상상의 세계에서 다루기 시작했다. 인간의 본성, 힘과 권력, 계층과 평등 등 다소 묵직하나 우리의 삶을 형성하고 틀 짓는 이슈들에 대해 깊이 사고하고, 참조 가능한 역사 속 일화나 서사를 끌어와 작업 속에 녹여낸다. 영화, 다큐멘터리, 뮤직비디오 등 폭넓은 범위의 영상 매체, 혹은 소설 속 모험담, 설화를 참조해 다층적 서사를 구축하고 회화의 소재로 사용한다. 일상에 기반한 상상의 세계를 이미지로 구축하고 실험하며, 이를 통해 관람자와의 공감을 형성하는 것이 궁극적인 지향점이다.

정수정 작가는 가천대학교와 글래스고 예술학교(The Glasgow School of Art, UK)에서 회화를 공부했고, 에이라운지(2023, 2021), SeMA창고(2021), OCI미술관(2020), 갤러리뎀(2019), 레인보우큐브갤러리(2018)에서 개인전을 가졌다. 대전시립미술관(2023), 일민미술관(2023), 실린더(2022), 하이트컬렉션(2021), 뮤지엄헤드(2020), 서울시립북서울미술관(2019) 등 한국의 주요 기관 및 상업 공간에서 개최하는 기획전에 참여했으며, FRIEZE SEOUL 2023 의 Focus Asia 섹션에서 솔로 부스를 선보인 바 있다. 작가의 작품은 OCI미술관과 BNK부산은행에 소장되어 있다.

○ 전시 서문

검은 뼈, 진심과 원석**Black Bones, Heart and Gemstones**

권정현(전시기획, YPC SPACE 공동 운영자)

회화라는 매체로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은 어떤 형태여야 할까? 회화와 서사 사이의 오랜 공조와 반목의 역사를 떠올리면, 회화에 서사를 담는 것은 부단히 문제적인 일이다. 다원화된 현대 회화의 장에서는 구상부터 추상까지 다양한 시각 언어가 작동하지만, 그럼에도 회화가 한낱 삽화(illustration)로서 이야기의 재현이 되는 것만은 금기시된다.

정수정은 회화만의 이야기 방식을 부단히 찾고 있는 것 같다. 그것은 텍스트를 이미지로 번역하듯이 하나의 장면을 잘 재현하는 것은 아니다. 정수정의 화면은 읽힐 듯하면서도 계속해서 읽히지 않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보여준다. 익숙한 도상들로 구성된 화면은 하나의 문장이나 단락으로, 즉 텍스트로는 환원되지 않는 서사를 만들어 낸다.

정수정의 회화는 분명 수많은 참조로 이루어져 있다. 관습과 문화에서 익숙하게 통용되어 온 도상들을 모으고 그 의미에 기대어 화면을 구성한다. 그러나 정수정은 결코 그러한 고정된 의미로만 도상을 사용하지 않는다. 도상이 가진 상징성에 기반해 어떤 의미로 읽어내게 하는 동시에 도상으로부터 그 의미를 빼앗는다. 그러므로 삽화를 읽듯이 이미지의 재현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춘다면 그것은 쉽게 읽히지 않는다. 반쯤은 본래 도상이 갖고 있는 의미에 기대며, 반쯤은 작가가 새롭게 부여한 의미를 더듬으며 읽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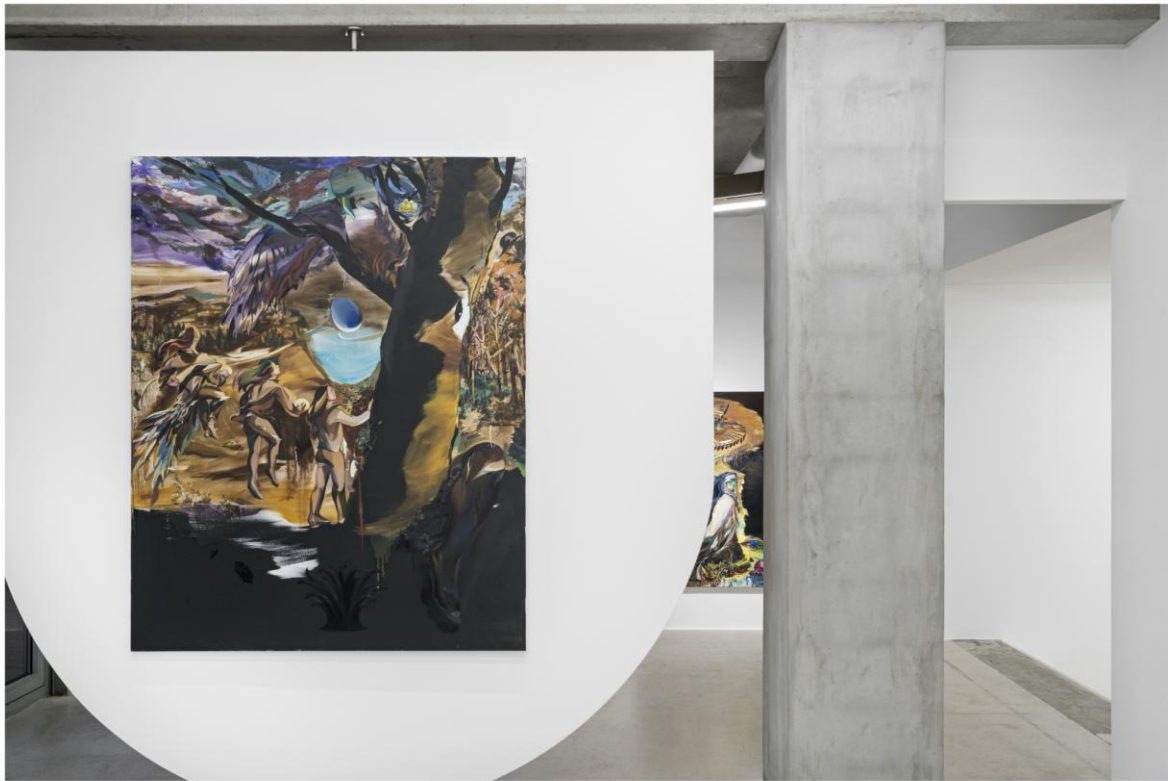
정수정의 도상을 면밀히 살펴보면, 익숙한 듯 보였던 것들이 낯설고 기이한 형태를 하고 있음이 보인다. 본래와는 다른 스케일로 확대되거나, 전형적인 색에서 벗어난 강렬한 색으로 강조되거나, 구상과 추상을 동시에 지닌 새로운 형태가 되기도 한다. 그 자체로 고정된 형태에서 벗어나 즉각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형상으로 나타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정수정의 회화는 레퍼런스의 집합으로서 평평한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깊이와 진심을 켜켜이 쌓아올린 것이 된다. 정수정은 그 도상들이 그저 관습적으로 통용되는 의미에 갇히도록 두지 않는다. 전형적인 것에 낯설고 이질적인 것이 덧붙고, 아름다운 것에 기괴한 것이 더해진다.

의미를 지니고 또 버리며 새로운 언어가 된 도상들은 서로 다른 것들과 얽히면서 화면을 구성한다. 시대가 뒤죽박죽으로 뒤섞이고, 예기치 못한 사물이 튀어나오고, 인과를 끊듯이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 그럴듯하게 병치된다. 각각의 이미지가 품고 있는 다중적이고 모호한 의미들은 서로 느슨하게 연결되며 이야기를 만들어 낸다. 그러므로 그것은 결코 선형적인 이야기, 텍스트적 이야기가 아니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종류의 이야기다. 한 번도 존재한 적 없었던, 시각 언어로 구사하는 그녀만의 이야기 방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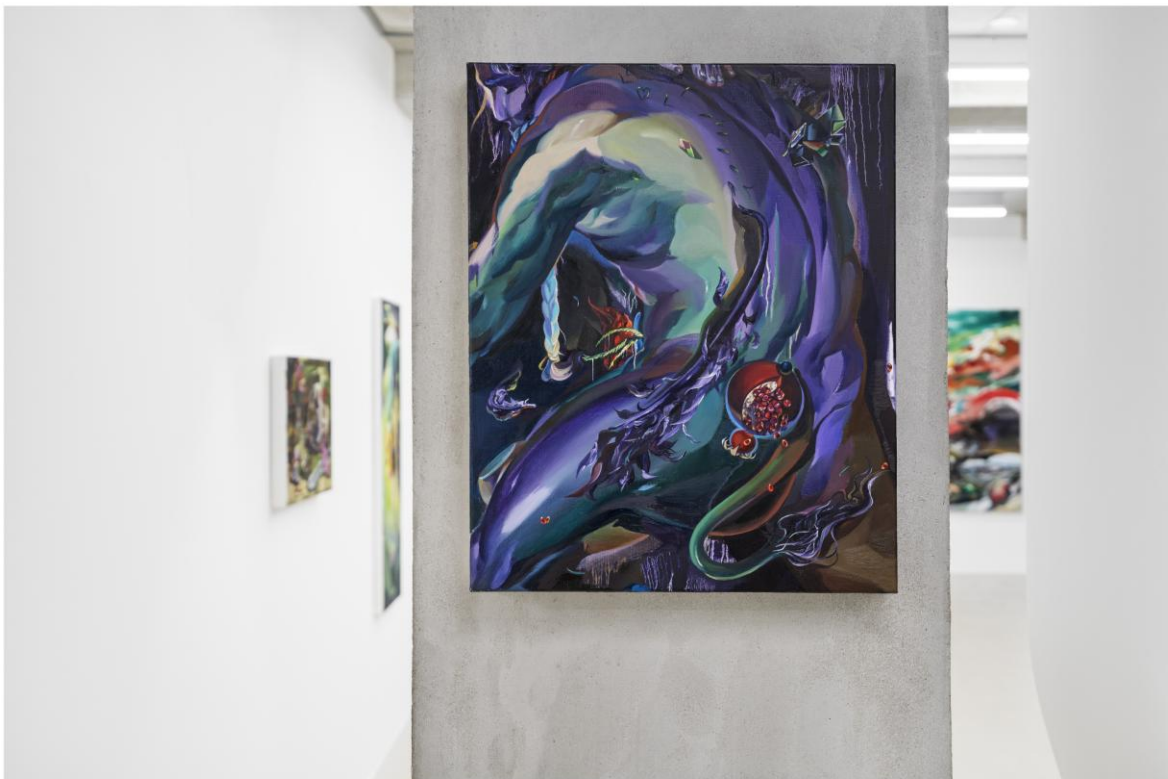
이번 전시에서는 '마녀'를 중심축으로, 분노와 슬픔, 원함과 격앙, 갈등과 질투가 교차하는 인물과 상황을 그린다. 그것은 역사 속에서 희생당한 이들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분노와 질투를 딛고 앞으로

나아가는 이들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마녀로 몰려 불타버린 여성들과 그들을 둘러싼 상징적 요소들을 정수정은 끌어오고 비틀어 새로운 이야기를 만든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마녀라는 코드는 하나의 상품이 되어서 전형화된 캐릭터로 소비되어 왔다. 정수정은 것처럼 표피만 남은 상징을 소비하는 대신에 그 표면 뒤에 있는 존재의 진정한 이야기를 만들고자 한다. 그녀는 의미적으로 딱딱하게 굳은, 죽은 도상들을 뒤집고 비틀고 변형하여 다시 생동하게 한다. 그러므로 여기서 마녀는 상징적 도상으로서 마녀인 동시에 그 도상의 관습적 의미로는 충분하지 않은 새로운 의미가 덧붙여진 마녀다. 정수정이 새롭게 써 내려간 마녀는 희생자이면서도, 강한 에너지와 욕망을 지닌 이들이며, 비탄에 빠져있으면서도, 분노에 타오르는 다층적이고 입체적인 인물로 나타난다. 그리고 그 다양한 모습의 면면에서 우리는 결국 우리를, 지금 이 시대를 만나게 된다. 관습적 도상을 넘어서 새로운 의미가 덧붙여진 이미지로 서사를 만드는 것, 텍스트로 환원되는 닫힌 서사를 넘어서 이미지로 구성된 열린 서사를 만드는 것, 그것이 정수정이 '회화'로서 이야기를 전하는 방식이다.

○ 전경 이미지



<Jealousy>, oil on canvas, 162.2x130.3cm, 2023>



<She had a tail>, oil on canvas, 50x40cm, 2023>

A-L

contemporary art space A-Lounge

* 모든 작품 이미지의 저작권은 작가에게 있습니다. 사진 제공은 에이라운지입니다.

* All Images ©The artist, Courtesy of A-Lounge, Seoul